BFIA와 함께하는 세계도시 부산

부산국제교류재단 2007 활동성과

BFIA ANNUAL REPORT 2007

BFIA

부산국제교류재단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발간사

외국인이 즐겁게 찾는 부산,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수준의 국제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부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을 찾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제 부산은 더 이상 세계무대에서 낯선 도시가 아닌 친숙한 세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7년 한해 활발한 국제교류활동과 협력사업 그리고 외국인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도 행복한 부산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외국인들의 부산생활을 돕고 부산시민들의 글로벌 의식을 높여나갔습니다. 외국 자매도시와 교류확대, 대학 및 민간 국제교류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교류의 기반을 충실히 다졌습니다. 부산 거주 외국인을 돕기 위한 외국인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성과를 자료집 한권에 소중히 모았습니다. 외국인도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재단 임직원, 함께 한 부산시민과 부산거주 외국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국제교류활동을 폭넓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보다 즐겁게 찾는 부산,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층 성숙한 국제도시 부산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안 준 태

부산국제교류재단 2007 활동성과
BFIAANNUALREPORT2007

3 발간사
5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6 2007 월별 행사

부산거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8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9 BFIA 한국어강좌
10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12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14 외국인 기업탐방 프로그램
15 외국인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
16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Busan Life' 발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내실화 도모
18 2007 세계도시화사업
19 국제교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20 자매도시 국제교류협력사업
22 한·러협력센터 운영

시민 세계화 역량 강화
24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26 세계문화체험교실
27 국제교류마당

국제교류재단 대외 이미지 제고
30 BFIA Friend(명예홍보위원) 위촉
31 홈페이지 운영 / E-뉴스레터 제작·발송
32 지구촌통신원 모집 및 운영

사업 관련 원고
34 E-뉴스레터 오피니언
36 BFIA Friend와 부산
38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자 원고
40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 후기

언론 보도자료 및 향후계획
44 2007 보도자료
48 2008 주요사업
49 행사 포스터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BFIA Introduction

추진목표
- 외국인도 살기 좋은 지원체계 구축
- 민간 국제교류활동의 중추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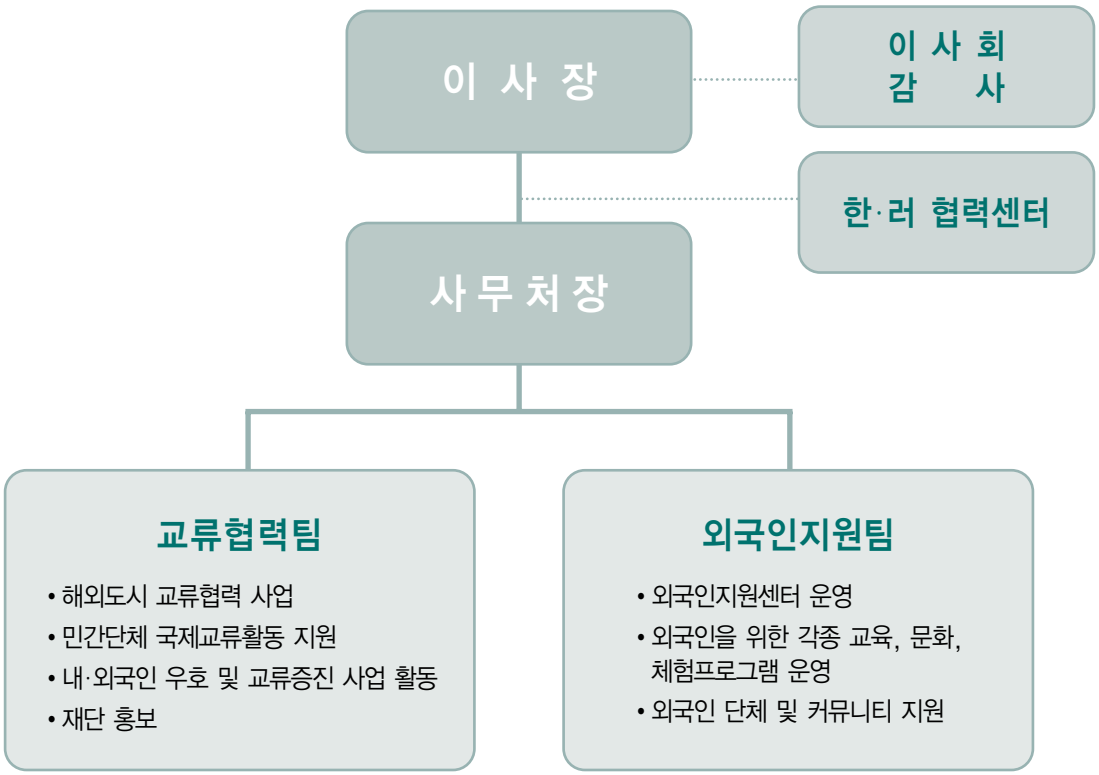
추진방향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교류사업 내실화를 통한 세계도시 건설
- 외국인과 교류를 통한 시민 세계화 역량 강화
- 대내외 홍보강화를 통한 재단 이미지 제고

기본현황
- 법인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 이 사 회 : 총 15명(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 조직구성
  2개팀–교류협력팀, 외국인지원팀
  1센터–한·러협력센터

재단 연혁

2007년	12월	정기 이사회 개최(7차)
	11월	임시 이사회 개최(6차)
	10월	제3대 이사장 취임(안준태)
	06월	임시 이사회 개최(5차)
	02월	임시 이사회 개최(4차)
2006년	12월	정기이사회 개최(3차)
	07월	제2대 이사장 취임(이권상)
	06월	임시 이사회 개최(2차)
	02월	개소식
	02월	정기 이사회 개최(1차)
2005년	11월	설립등기, 제1대 이사장 취임(안준태)
	11월	법인허가
	09월	발기인 총회

조 직 도



2007 월별 행사
Monthly Activities 2007

1

2(화)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실시
2(화) 제1기 BFIA한국어강좌 개강식(3개반)
15(월) 세계도시화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실시
20(토) 한일친선특별공연 실시

2

2(금) 후쿠오카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부산 방문
7(수) 부산국제교류재단 2006 활동성과집 발간
14(수)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한지공예)
28(수) 오클랜드 부산사진전 개최

3

2(금) e-뉴스레터 발행
15(목) BFIA 명예홍보위원 위촉(3명)
26(월) 홈페이지 개편·서비스 개시
31(토) 제1기 BFIA한국어강좌 수료식

4

2(월) 제1기 세계문화체험교실 개강
11(수)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화전과 다식)
12(목) 스페인 하원부의장 일행 부산방문
23(월) 한미친선회 참전용사 UN기념공원 행사

5

4(금) 상반기 외국인 부산기업탐방
9(수)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부산시립박물관탐방)
15(화) BFIA 명예홍보위원 위촉(2명)
25(금) 한-베 우호 친선의 날 행사 지원

6

1(금)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14(목) 시카고 리틀올코리아예술단 방문
19(화) Claire Lilienthal School 부산방문
23(토)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 방문

7

3(화) 제3기 BFIA한국어강좌 개강식(3개반)
9(월) 수라바야시 교육방문단 부산 방문
13(금) BFIA 명예홍보위원 위촉(2명)
16(월) 결혼이민자가족 무료 건강검진

8

1(수) 기초한국어강좌 개설(3개반)
1(수) e-뉴스레터 발행
14(화) 한·터 수교 50주년 이스탄불문화전 개최
21(화)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장구, 가야금)

9

12(수)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전통의상)
13(목) 후쿠오카 지구시민돈타쿠 2007 참가
13(목) 하반기 외국인 부산기업 탐방
29(토) 뉴질랜드 청소년 축구팀 부산방문

10

11(목)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Busan Life' 발간
16(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23(화) DR 콩고 교류협력단 부산 방문
23(화) 외국인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5회)

11

3(토) 국제교류마당
9(금) 한국-베트남 상호 문화공연
9(금) 오클랜드시 '07 Korean Night 참가
24(토) 지구촌통신원 안동 하회마을 방문

12

5(수) 국제교류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6(목) 제6회 정기이사회 개최
11(화) 부산시 교육방문단 수라바야 방문
12(수)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김치담그기)

2007년도 주요활동

Major Activities

부산거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08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 09 BFIA 한국어강좌
  BFIA Korean Classes
- 10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Korean Cultural Experience Program
- 12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Korean Speech Contest
- 14 외국인 기업탐방 프로그램
  Visits to Local Companies
- 15 외국인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
  Special Cultural Performances for Foreigners
- 16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Busan Life' 발간
  The 'Busan Life' Newsletter for Foreigners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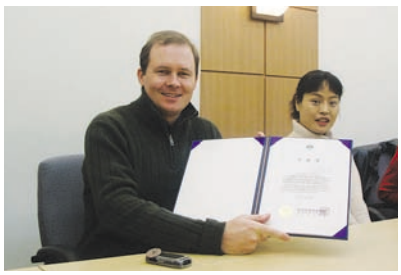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부산시청 1층
- 개방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 시　　설 | 인터넷룸, 도서대출, 국제전화, 상담창구, 회의실 등

Foreign residents could get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legal, housing, medical and educational matters at the Assistance Center. Various services were offered, including a free international phone call service, free internet access, books that could be borrowed, etc.

BFIA 한국어강좌

BFIA Korean Classes

- 기　　간 | 2007년 1월~12월
- 개설강좌 |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 수강인원 | 23개국 327명



According to their speaking ability, 327 foreign residents received Korean language classes offered at pre-beginner beginner · intermediate · advanced levels, and experienced various cultural events.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Korean Cultural Experience Program

- 운영횟수 | 총 8회
- 프로그램 | 화전과 다식, 전통의상체험, 김치담그기, 부산문화유적탐방 등
- 참가인원 | 17개국 400명

400 foreigners from 17 countries participated at various Cultural Experience Program events such as Korean paper craft, kimchi-making and field trips to understand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Korean Speech Contest

- 일 자 | 6월 1일(금)
- 장 소 | 부산시청 대강당
- 참가자 | 20명
- 시 상 | 세종대왕상(1명), 훈민정음상(2명), 한글사랑상(3명)

In order to help foreigners staying in Busan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peak Korean, 20 foreigners who had passed a qualifying round were invited to make speeches about cultural differences and their unique experiences of their stay in Busan.

외국인 기업탐방 프로그램
Visits to Local Companies

- 운영횟수 | 총 2회
- 내　　용 | 항만관련시설 및 부산시내 기업 탐방
- 참가인원 | 14개국 110명

Foreigners we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look around Local companies and industrial facilities in Busan. Around 110 foreigners from 14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Germany and Malaysia joined this program last year.

외국인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

Special Cultural Performances for Foreigners

- 운영횟수 | 총 5회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내　　용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및 시립무용단 공연
- 참가인원 | 1,200여 명

A total of 12,000 foreigners enjoyed the chance to appreciate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dance. These included samulnori, minyo and gayageum performances by professional musicians and dancers.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Busan Life' 발간

The 'Busan Life' Newsletter for Foreigners

- 발행주기 | 월간
- 발행부수 | 매월 2,000부
- 내　　용 | 부산 생활정보, 문화행사, 커뮤니티 소식, 재단 뉴스 등
- 배　　부 | 외국공관 및 문화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각 대학 및 관계기관

BFIA's newsletter, *Busan Life*, has been freely distributed to relevant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to make BFIA programs more widely known and provide useful news to foreigners.

2007년도 주요활동

Major Activities

국제교류 협력사업 내실화 도모

- 18 2007 세계도시화사업
  2007 Subsidy Program
- 19 국제교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Contest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 20 자매도시 국제교류협력사업
  International Exchange with Sister Cities
- 22 한·러협력센터 운영
  Korea-Russia Cooperation Center

2007 세계도시화사업

2007 Subsidy Program

- 내　　용 |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보조금 지급 및 민간단체 활성화
- 지원금액 | 8개 단체 총 39,380천원 보조금 지급

• (사)한일문화교류협회
한일어린이심포지엄2007

• (사)부산아시아드 지원협의회
아시아 시민 네트워크
–"제1회 아시아 NGO 교류포럼"

•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베 대학생 문화교류 포럼

• APEC 기념재단
외국인 유학생 후견인 사업

•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외국인유학생과 함께하는 도시
오리엔티어링 – 모바일미션파서블

• (사)한나래문화재단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

• 아이섹 부산대학교
국제하계캠프

• (사)비전과 연대21
청도청년연합회 교류회 및 심포지움

BFIA supported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being carried out by 8 private organizations with 39,380,000 won in subsidies.

국제교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Contest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 일　　자 | 12월 5일(수)
- 내　　용 | 우수사업 발굴과 국제교류 아이디어 공유
- 시상금액 | 8개 국제교류사업 총 480만원 시상금 지급
- 시상내역 | 최우수상(200만원), 우수상(100만원), 입선(각 30만원)

BFIA awarded prizes totalling 4,800,000 won to 8 organizations carrying out excellent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자매도시 국제교류협력사업
International Exchange with Sister Cities

- 자매도시 기념행사 참가, 각종 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
- 외국 도시와의 각종 민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2월 | 부산-오클랜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부산사진전

4월 | 한미친선회 참전용사 UN기념공원 방문

4월 | 스페인 하원부의장 일행 부산방문

6월 | 터키 한국전 참전용사 방문

6월 | 한·터수교 50주년기념 전통 민속춤 공연

7월 | 수라바야시 교육방문단 부산 방문

BFIA implemented a variety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with sister cities, especially for youth groups, to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Busan around the world.

8월 | 시카고 리틀올 코리아 예술단 부산 공연

9월 | 후쿠오카 국제협력 페스타
'지구시민 돈타쿠 2007' 참가

9월 | 뉴질랜드 청소년 축구 대표팀 부산방문

10월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교류협력단 방문

11월 | 베트남 호치민시 부산의 날 행사 참가

12월 | 부산시 교육방문단 수라바야 방문

한 · 러협력센터 운영

Korea-Russia Cooperation Center

- 부산-극동러시아 교류증진 에세이 공모전 개최('07. 5)
- 부산-러시아·CIS 청소년 여름캠프 개최('07. 8)
- 정기소식지 '러시아로 열린 창' 발간(분기별)
- 부산생활안내책자 'Life in Busan' 러시아판 발간('07. 1)

The Korea-Russia Cooperation Center organized international activities, coordinate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between Busan and Russia and carried out student exchange programs like the 'Busan-Russia CIS Youth Camp'.

2007년도 주요활동

Major Activities

시민 세계화 역량 강화

- 24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Global Gathering 2007
- 26 세계문화체험교실
  World Culture Class
- 27 국제교류마당
  Global Busan with You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Global Gathering 2007

- 일　　자 | 10월 13일(토)
- 부스운영 | 32개 단체 및 국가, 총 43개 부스
- 내　　용 | 문화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
- 참가인원 | 20,000여 명

Exhibitors from 32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international associations and corporations promoted their own cultures through the use of visual media, food and traditional crafts. Around 20,000 people came to enjoy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ultures and performances.

Turkey

Brazil

BEXCO
일본 JAPAN
일본 JAPAN

세계문화체험교실
World Culture Class

- 기　　간 | 3월~6월, 9월~11월
- 개 설 반 |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터키(7개국)
- 내　　용 | 기초 생활회화, 세계음식 체험, 전통문화 소개, 영화감상 등
- 참가인원 | 195명

Foreign volunteers from 7 different countries worked as lecturers to provide Busan's citizens with 8 classes on the culture and languag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국제교류마당
Global Busan with You

- 일　　자 | 11월 3일(토)
- 내　　용 | 내·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결성
- 참가인원 | 200여 명

170 participants, BFIA supporters and foreigners alike, had a great time playing different types of fun-filled games together. This outdoor event provided them with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each other regardless of color, race, and nationality.

|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7 어울마당 전경 |

2007년도 주요활동

Major Activities

국제교류재단 대외 이미지 제고

• 30 BFIA Friend(명예홍보위원) 위촉
BFIA Friend

• 31 홈페이지 운영 / E-뉴스레터 제작·발송
BFIA Website / E-newsletter

• 32 지구촌통신원 모집 및 운영
BFIA Global Correspondents

BFIA Friend(명예홍보위원) 위촉

BFIA Friend

- 대 상 | 부산거주 1년 이상 외국인 중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인 원 | 12명(매월 1명 선정 위촉)
- 역 할 | 재단 홍보, 외국인 커뮤니티 연계, 신규 사업 자문 등

Foreigners who have stayed for at least one year in Busan were appointed as BFIA Friends each month to serve as ambassadors for the BFIA.

1월

하인즈 바그너
Heins Wagner
국적 | 독일
직업 | 독일선급협회 한국지사장

2월

엠마뉘엘 보띠오
Emmanuel Bottiau
국적 | 프랑스
직업 | 부산프랑스문화원 원장

3월

구엔 티 홍 하이
Nguyen Thi Hong Hai
국적 | 베트남
직업 | 부산시 파견직원

4월

케니 에드워즈
Kenny Edwards
국적 | 캐나다
직업 | 부산외국인대표자 멤버

5월

프랑스와즈 에스피노자
Françoise Espinosa
국적 | 프랑스, 스페인
직업 | 부산국제여성회 회장

6월

프르퍼 한스
Hans J. Prufer
국적 | 미국
직업 | 동명대학교 교수
유엔기념공원 고문

7월

스티븐 파머
Stephen Palmer
국적 | 영국
직업 | 부산국제학교 교장
부산외국인대표자멤버

8월

제고쉬 가이덱
Grzegorz Gajdek
국적 | 폴란드
직업 |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9월

빈첸쵸 캄피텔리
Vincenzo Campitelli
국적 | 이탈리아
직업 | 부산외대 이탈리아과 교수

10월

안드레아스 피더스토르퍼
Andreas Piederstorfer
국적 | 독일
직업 | 동아대학교
유럽어문학부 교수

11월

유소프 이반
Yusov Ivan
국적 | 러시아
직업 |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교환교수

12월

베아타 오르자제브스카
Beata Orzazewska
국적 | 폴란드
직업 | 부산국제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홈페이지 운영
BFIA Website

- 지원언어 | 2개 국어(한국어, 영어)
- 내　　용 | 재단 및 사업 활동, 각종 정보와 게시판 제공

E-뉴스레터 제작 · 발송
E-newsletter

- 발행주기 | 월 1회
- 내　　용 | 재단소식, 오피니언, 행사소식, 교류활동 참가후기 등
- 발송대상 | 재단 행사 참가자, 자원봉사자, 외국인 등 2,800여명

The BFIA website offered news in Korean and English throughout the year regarding BFIA's programs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E-newsletters were distributed to 2,800 members every month.

지구촌통신원 모집 및 운영
BFIA Global Correspondents

- 대　상 | 한국어에 능통한 부산거주 외국인
- 인　원 | 11개국 35명
- 역　할 | 각종 국제교류활동 참가 및 자원봉사 활동

35 fluent Korean-speaking BFIA Global Correspondents worked a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ides at a variety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사업 관련 원고

Selected Articles

BFIA 인터뷰 및 참가 수기

• 34 **E-뉴스레터 오피니언**
성역을 트자 / 강남주(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
세계도시와 정주 외국인 / 박명흠(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부회장)

• 36 **I/N/T/E/R/V/I/E/W**
BFIA Friend와 부산

• 38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자 원고**
장연(세종대왕상)
누룰, 이세리 미카(훈민정음상)

• 40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 후기**
정미진(부산시 교육방문단 수라바야 방문 후기)
최여숙(서포터즈 활동 후기)
바셀(외국인 기업탐방프로그램 참가 후기)
타헤르(지구통신원 활동 후기)
박춘선(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참가 후기)

| E-뉴스레터 오피니언 |

성역을 트자

부산국제교류재단 이사
강 남 주

세계는 블록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럽 공동체(EU)는 국가간 정치 경제의 대통합을 꾀하면서 동일 화폐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서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은 관세, 투자와 금융에서 상대국에 내국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7%인 이 지역이 세계 교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1992년에 이미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이란 공동체가 결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소 느슨했던 이 공동체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상승과 지역안보에서 주도권 행사를 노리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동티모르는 이 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재진행형이다. CHINDIA(중국,인도)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그 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어느 블록에도 가담하고 있지 않다. 블록화가 최상은 아니지만, 국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상생과 공영을 모색하려는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활동을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발목이 잡혀 세계화에 소극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선진제국에서도 민족주의라는 우상보다 자국 번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버릴 것과 얻을 것, 고집할 것과 포기할 것이 명분 있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다. 그러나 이 세 나라는 EU라든지 NAFTA, 또는 ASEAN을 닮은 어떤 연대 관계도 서로 간에는 없다. 이렇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직도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동맹관계마저도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정체성의 손상이 없는 한 과거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익 없는 자존심을 앞세워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또 그런다고 사실상 국가 민족, 또는 그 동질성이나 자존심이 해체되거나 손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소극적이다. 국가간의 유대 강화도 만족스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다른 나라의 도시와 연대 강화를 도모하면 어떨까. 지방분권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도시를 향한 도시 블록화 구상이 그것이다.

부산은 인구 4백만에 가까운 도시다. 후쿠오카는 130만, 북구주시도 비슷하다. 후쿠오카는 비행기로 40분, 쾌속정으로 3시간 거리, 그 옆에 북구주시가 있고, 그 도시와 맞닿은 곳이 시모노세키다. 이들 도시는 유사성이 많다. 다만 부산과 이들 도시 사이에는 국경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국경은 성역이 아니다. 네 도시를 경제, 교육, 문화면에서 하나로 엮는다면 서로의 발전이 눈에 보인다. 부산으로서는 국경을 넘은 도시의 확장이 된다. 부산은 이름뿐인 그 성역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부산이 안고 있는 과제이자 발전의 전략이다.

약력
1939년 경남 하동 출생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집행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
前 부경대학교 총장

논저
시집 '등불을 앞세우고' 외 8권
평론집, 문학이론서, 컬럼집 등 다수

| E-뉴스레터 오피니언 |

세계도시와 정주 외국인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부회장
박 명 흠

부산은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유치하였고,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성공리에 개최했던 부산은 어느 덧 세계도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몇 번 유치하였다고 세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도시의 여건과 환경이 다듬어지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며, 개최한 후에도 포스트 이벤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시가 세계를 향하여 도약해 가는 것이다.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에 걸맞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세계도시를 선도할 만한 여러 시설, 그리고 이들을 신속하고 안락하게 이어줄 정보와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이나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 등 온갖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한 도시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세계도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의 정주 외국인 문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첫째는 그들 외국인의 숫자이고, 다음은 그들에게 얼마나 친근감을 주고 있는 도시인가라는 것이다. 인구가 1,000만 도시이든 100만 도시이든 외국인들도 그에 걸 맞는 규모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360여만 명의 부산시민들이 사는 우리 부산에 외국인들은 현재 2만 3천여 명 살고 있다. 물론 관광객이나 불법체류자는 제외한 숫자이다. 서울에는 17만 5천여 명이 살고 있고, 인천에만도 3만 6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니 부산의 외국인수는 대단히 적은 것이다. 44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약 90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국가라 아니할 수가 없다.

다음은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생활편의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부산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부산의 지역주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귀국 후에는 부산의 홍보사절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산을 잘 아는 지부파(知釜派)'가 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의 생활불편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어소통이 곤란하고 외국어 표기가 잘 안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도 다반사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IT 왕국이라는 간판은 우리들만의 것으로 인터넷 가입이나 인터넷 쇼핑·예매는 물론, 휴대폰 가입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또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용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쓰도록 한 것인데, 외국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니 남성에게 여성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부산도 세계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크고 작은 장애요인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에 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물론이거니와 부산시민들도 외국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어 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부산에 많이 모여들고, 그들이 제2고향으로 여길 정도로 부산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때 부산의 세계도시는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약력
1953년 경남 밀양출생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장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부회장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논저
한중일지방도시의 국제화 정책
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발전방향 등 다수

I/N/T/E/R/V/I/E/W

BFIA Friend와 부산

부산에 살게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인즈 바그너

1985년도 독일선급협회 한국지사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6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1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멋진 바다와 산에 인접해 있는 부산에 끌려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구엔 티 홍 하이

호치민 시에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와 파견 직원 상호교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한국어를 전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운 좋게 호치민 시의 제1대 파견 직원으로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프르퍼 한스

1994년까지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미국으로 잠시 귀국해 3년 동안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만, 아내 고향인 김해 근처인 부산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덜 복잡하고 자연환경이 풍부한 부산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에 날 때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시는지요?

유소프 이반

10살 때 아버지에게 카메라를 선물 받은 후 사진 찍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사진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냥 취미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제3회 부산불꽃축제' 때는 필름 5통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고쉬 가이텍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매주 3번이상은 체육관에 가서 스쿼시를 하고 가끔 함께 치는 친구들과 시합도 합니다. 그 후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외에도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능하면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고 여행을 하는 것도 즐깁니다.

케니 에드워즈

하이킹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이킹 자체도 즐겁지만 하이킹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또 한국에는 아름다운 사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찾아 가는 것도 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한국의 산은 아름다운 사찰과 어우러져 등산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부산의 명소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드레아스 피더스토르퍼

대도시의 경우 한국이나 외국의 풍경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산을 방문하면 범어사나 통도사 같은 사찰에 갑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며 공기도 나쁜 도시보다는 한국의 정신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사찰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특히, 저녁에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 모습은 외국인에겐 아주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베아타 오르자제브스카

광안대교 같은 다리가 저의 고향인 그디니아에서 그다인스크만에 세워진다면 교통혼잡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특히, 산낙지, 김밥을 즐겨 먹고 한국식으로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비빔밥과 집에서 담근 김치(한국 친구한테 얻은 김치가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국수, 만두, 잡채, 삼계탕, 제가 집에서 자주 끓이는 된장국 등입니다.

스티븐 파머

해운대야 말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멋진 레스토랑, 다양한 이벤트 등 해운대에서 항상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내어 즐길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본 내용은 2007년 매달 1명 씩 실시한 'BFIA Friend(명예홍보위원)' 들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부산이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프랑스와즈 에스피노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보강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유럽권의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유럽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하는 거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한국의 전통문화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해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한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요.

빈첸쵸 캄피텔리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친절한 태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꼭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죠. 국제도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산은 이미 멋진 국제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프르퍼 한스

저는 2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통해 많이 적응이 되었지만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아직 많지 않고 병원, 법률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등록비가 저렴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국제학교 설립 등도 있겠네요.

앞으로 재단이 해야 할 일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엠마뉘엘 보띠오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프랑스문화원이나 다른 기관들과도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지원도 잘 이루어진다면 서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고쉬 가이덱

저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보다가 재단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잘 홍보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외국인들이 재단을 찾고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스 피더스토르퍼

요즈음 미디어와 인터넷 시대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만큼 재단도 홈페이지를 더 잘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영어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들의 정보가 제공되어 부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훌륭한 정보 제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아타 오르자제브스카

재단은 저에게 한국과 부산이라는 사회를 열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한국, 특히 부산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부산 시민들과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더 넓고 다양한 세계와 이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세종대왕상 |

울산 아주머니

장 연 / 중국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 다른 것은 줄 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 집은 중국에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비행기 옆 좌석에 한 아주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시작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얘기하다가 아주머니께서 울산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의 연락처도 주고 받았습니다. 얼마 안 돼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연락하셔서 집에 초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만남이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혼자서 울산으로 갔지만 길을 잘 몰라서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주머니께서는 전화를 14통이나 하셨습니다. 사과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듯이 "한국말이 아직 서툰데 혼자 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같이 부산에서 오자꾸나... 손은 왜 이렇게 차니? 자, 내 목도리 둘러라." 라고 하시면서 목도리를 둘러 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 덕분에 제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이 작지? 그래도 고향집처럼 편하게 있어라." 아주머니께서 과일과 과자를 차려 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장연이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도 돼, 알지?" 이전에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자기 딸처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집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 것처럼, "참, 우리 아들은 기타를 잘 친단다. 우리 아들 기타 치는 영상을 보여 줄까?" 라고 하시며 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미소를 띠면서 화면을 쳐다보셨습니다. 아들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처음으로 메신저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제 자랑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요즘 부모님께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부쩍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랑 같이 즐겁게 보내고 시외버스 정거장에서 헤어질 때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부산에 가게 되면 또 만나자. 밥 잘 먹고 몸 조심해라. 다음에 또 놀러 와." 천천히 버스가 출발하고, 유리창을 통해서 아주머니께서 계속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올 때 끝까지 저를 바라보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르지만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은 어디서나 같고, 특히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자 원고

| 훈민정음상 |

내가 본 대한민국

누룰 /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누룰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공부한지 일곱 달 됐는데 그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첫인상은 뜨겁고 강렬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을 때 마다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먹어도 매운 음식에 고춧가루를 더 뿌려 먹으면서 "캬아~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운걸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든지 시작을 했다 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을 말하고 싶어요. 가끔 "먹고 죽자"라고 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은 술을 마실 때도 끝까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한국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무척 존경해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을 보면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하지만 너무 예의를 차리다 보니 한살 차이라도 친구로 다가서기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한 뒤에 꼭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 봐요.

이 말은 제게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 밖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이 말의 뜻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이 웃었어요.

지금까지 제 2의 고향 같은 한국에서 일곱 달을 지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해 봤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무척 값진 것이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 더욱 더 개방적으로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훈민정음상 |

엉덩이 사건

이세리 미카 / 일본

한국에 와서 주사를 맞아 봤습니까?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주사를 어디에 맞습니까? 일본에서는 주사를 팔에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 맞는 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됐을 때 발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시는 교수님께서 저를 어떤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사진을 찍고… 여기까지는 말이 다른 것을 빼고는 일본 병원이랑 별로 다른 부분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통역도 해주시고 저는 편한 마음으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저의 한국 병원 데뷔는 이대로 무사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진찰을 받은 다음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통의 주사였습니다. 진찰도 엑스레이사진도 일본이랑 거의 똑같아서 주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혼자서 주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주사를 맞을 때와 같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때, 간호사가 뭔가 말했습니다. 당시 제가 아직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지' 라는 말만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설마 엉덩이에 주사를 맞나?" 틀림없이 팔에 주사를 맞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역시 재미있는 한국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돼서 설마 남 앞에서 엉덩이를 보여 줘야 한다니… 게다가 서 있는 자세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바지를 내렸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 때 필요 이상으로 바지를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사를 맞은 곳은 허리 쯤이었는데.

바지를 내리자마자 다음에는 간호사가 갑자기 제 허리 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간호사는 사라졌습니다. 벌써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부끄럽게 그 자세대로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방에 대담하게 들어온 다른 간호사 때문에 방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교수님께서 저의 엉덩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친 것보다 더욱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엉덩이에 얽힌 "사건"이 지난 지 5개월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에 와서 다친 것은 불행이었지만 어떻게보면 유학와서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겪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엉덩이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길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 부산시 교육방문단 수라바야 방문 후기 |

평생 기억에 남을 수라바야

정 미 진 / 양운고등학교 1학년

우리 부산 방문단은 4박 6일 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방문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수라바야 측에서 많은 준비와 함께 따뜻하게 맞이해 줘서 머무르는 내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생활환경은 한국과는 많이 달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은 한국의 1960-70년대를 보는 듯 했다.

우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오토바이였다. 밤에 공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찻길을 보니 오토바이들이 수십 대 씩 줄지어 초록 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폭주족' 인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 날, 그들이 폭주족이 아닌 일반 출퇴근길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이라 나의 홈스테이 친구인 Uya에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간단했다. 차의 가격이 오토바이보다 비싸기 때문이었다. 학교 교문 옆에도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이용하는 오토바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남녀노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또, 한명도 빠짐없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헬멧 착용률이 백퍼센트에 가깝다고 한다.

열대 지방이라 생활환경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이나 큰 상점을 빼고는 실내외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Uya의 집 역시, 내부에 큰 화단과 새장이 있었고 천장이 없는 부분도 띄엄띄엄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부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복장 역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상할까 봐 섭씨 30도 안팎을 맴도는 날씨에도 반팔 대신 긴 소매에 점퍼까지 입고 다니는 것이었다. 여자 이슬람교도들 중 일부는 수녀처럼 머리에 천을 둘러쓰고 얼굴만 내밀고 생활을 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더워 보였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정말 위험해 보였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유리조각,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길거리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인도네시아는 빈부격차가 아주 크다. Uya와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정지신호를 받고 잠시 정지해 있었다. 그런데 무심코 창 쪽을 바라보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한 아이가 창문에 두 손을 모은 채 불쌍한 표정으로 신문 하나만 사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한쪽 손에는 아침에 채 다 팔지도 못한 신문들을 들고 있었고 그 옆 화단에는 친구처럼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두 아이의 애절한 표정과 당황스러움에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옆에 있던 Uya가 너무나 당연한 무표정으로 그 아이의 얼굴 앞에 손을 뻗어 흔들며 안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듯 한 태도와, 1달러만 있으면 환한 웃음을 지을 것 같은 그 아이와, 그 중간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유 모를 두려움에 앉아있던 나. 그 때의 심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착하고 순수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얼굴빛이 천진난만했다. 특히 학교에서 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친절하고 헌신적이어서 그런 대우에 익숙하지 못한 내가 도리어 섭섭하게 응대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슬람교'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테러집단을 떠올리던 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 외에도 한국과는 달리 기술 중심의 실용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과 생활, 수업 환경, 많이 다른 문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또래들과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왔다.

| 서포터즈 활동 후기 |

내 꿈을 향하여

최 여 숙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평소부터 나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정말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교류 행사 같은 것에는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이번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나로서는 정말 뜻깊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산에 외국인 친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나라에서 한국, 여기 부산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다른 자부심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체험이나 외국인 기업탐방과 같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로 각국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짧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이 준비한 말하기대회의 발표 내용은 나에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평소에 내가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또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어가 아직은 조금 서투른 탓에 갖가지 많은 실수를 하면서 한국어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워나가는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예뻐 보였다.

이번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서포터즈 활동들을 계기로 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노력 할 것이다. 한국을 위한 작은 거인이 되는 것이 꿈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여 그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얻을 수 있었던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BFIA 화이팅!!

| 외국인 기업탐방프로그램 참가 후기 |

내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될 기업탐방프로그램

바 셀 / 부산대학교, 이집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셀(Basel Seoudi)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현재 저는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부산국제교류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외국인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저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중한 경험이었고 더불어 부산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갖게 해 주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방문 할 수 있었던 점이 제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4일, 저는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북항지역, 한진중공업, 용두산공원 그리고 태종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조선산업은 저의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은 한국 내에서 중공업 분야의 선도기업이라 저에게는 더욱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기업탐방은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적인 면과 관광적인 면이 적절히 조화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업탐방' 행사일 내내 저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을 도와주시고, 이번 행사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 주신 부산국제교류재단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국제교류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활동 후기

지구통신원 활동 후기

나의 기쁨과 지식의 원천, 부산국제교류재단

타헤르 / 부경대학교, 방글라데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은 특히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 한국문화를 알고자하는 부산거주 외국인에게 기업탐방, 레크리에이션, 어울마당, 그리고 김치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한 부산국제교류재단 '지구촌 통신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 재단을 통해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친구로 다가와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외국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외국인은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세계에서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 김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다. 재단에서 지난 연말에 개최한 '김치만들기' 행사도 잊을 수 없다. 그 행사에서 나는 김치뿐만 아니라 잡채와 파전도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우고 참석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 재단에서 주최한 부산의 한 고아원 방문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사였다. 고아원 어린이들과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그 자체는 내게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곳 아이들은 마치 천상(天上)의 꽃처럼 보였다.

내가 부산에 공부하러 온지도 어느덧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의사소통과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은 재미있기도 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한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참가 후기

선 물

박 춘 선 / 인제대학교, 중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산국제교류재단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에 인제대학교 교환학생 와서 재단의 배려로 운 좋게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계 중국인인 나는 설날 같은 명절에 어르신들이 늘 전통의상에 장식품을 착용하고 계신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면서 한복과 문화에 깊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통매듭 체험교실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다

체험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선생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짓과 간단한 한국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다.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매듭을 만드는 동안은 하나 씩 엮어나가는 모습이 어려워 보였고 시간도 이미 반 이상을 넘기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점점 잠겨갔다. 2시간 예정된 체험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참가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들은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는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결국 프로그램은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그렇지만 마칠 때는 정말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갔으며, 선생님이 주시는 예쁜 주머니도 선물로 받았다. 한복을 입을 때 몸에 착용하는 물건이라고 하셨다. 그 날 참가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한 소중한 시간과 선생님이 주신 주머니 뿐 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깊은 정감도 함께 선물로 받았다.

BFIA in the Media & Major Activities 2008

언론 보도자료 및 향후 계획

- 44 2007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07
- 48 2008 주요사업
  Major Activities 2008
- 49 행사 포스터
  Posters

2007 보도자료

부산KBS

일본 전통악기 연주 등 한일 친선 공연

:: 부산 KBS | 2007.01.20 |

재 부산 일본 영사관과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한일 친선 특별공연이 오늘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연에는 일본의 전통악기인 쓰가루 샤미센 연주와 성대모사, 마술공연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안종홍 기자

부산KBS

올해 9개 세계 도시화 사업 지원

:: 뉴스광장 KBS뉴스9 (부산 KBS) | 2007.01.23 |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문을 연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올해 9개 민간단체의 세계 도시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모두 19개 단체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한일 어린이 심포지엄, 한국-베트남 대학생 문화교류 포럼 등 9개 사업에 대해 4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부합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안종홍 기자

부산KBS

외국인 한국 전통문화체험 성과 커

:: 뉴스광장 KBS뉴스9 (부산 KBS) | 2007.02.11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올 한 해 8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4일 한지 공예를 시작으로 장구 가야금 체험과 김장김치 만들기 등 전통 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부산시립박물관 등 문화유적 탐방 행사 등도 마련됩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모두 11개 나라 213명이 참가해 우리의 전통 문화들을 체험했습니다. :: 안종홍 기자

부산일보 busanilbo.com

한국문화체험

:: 부산일보 [포토뉴스] | 2007.02.15 |

한국문화체험 14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지공예 작업을 하고 있다. :: 정종회 기자

바른언론 빠른뉴스 연합뉴스

부산생활 안내서 러시아어로 나왔다

:: 연합뉴스 | 2007.02.16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부산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라이프 인 부산(Life in Busan)'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프 인 부산'은 부산시가 지난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만든 생활안내 책자로 외국인이 부산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전반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영어판과 일본어판, 중국어판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어판까지 나왔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러시아어판을 2천부 제작해 여행사와 관광관련 단체,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현재 부산에는 5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상주하고 연간 5만명 가량의 선원들이 드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인들도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 이영희 기자

국제신문

국제교류재단, 세계문화체험교실 운영

:: 국제신문 | 2007.03.15 |

외국어와 음식 등 외국의 문화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다음달부터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각국의 기초생활회화뿐만 아니라 음식과 역사, 영화, 노래,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소개한다. 특히 각 과정마다 매월 1회 가질 문화체험은 음식 만들기, 대중문화 엿보기, 전통문화 알기 등 주제를 정해 진행된다.
올 상반기에는 일본(월요일)과 중국(화요일), 터키(수요일) 베트남(목요일) 러시아(금요일) 등 5개반 과정을 요일별로 운영하며 정원은 반별로 15명이다. 오는 25일까지 국제교류재단(www.bfia.or.kr, 051-888-6655)에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 최현진 기자

국제신문

서툰 한국말에 부산사랑 가득

:: 국제신문 | 2007.05.22 |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자랑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22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대만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티벳 터키 필리핀 몽골 등 15개국에서 온 110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대회 주제는 '부산에서 생활을 통해 느낀 점'과 '자신의 고향과 부산의 차이점' 등.

22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동하 기자

이날 중국인 리슈 씨는 부산대 교환학생으로 온 뒤 서툰 인사말로 곤욕을 치렀다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교수에게 "교수 안녕"이라고 인사를 잘못 하는 바람에 당황한 교수의 얼굴로 인해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다며, 지금은 "교수님 안녕하세요?"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국인 예신 씨는 선생을 "생선"으로 발음해 심사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베트남인 주부 레티다오 씨는 '생선이 기절했어요'를 주제로 베트남과 부산의 문화적 차이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으로 시집온 뒤 시어머니와 함께 간 시장에서 생선이 온통 '기절해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적잖이 놀랐다는 것이다. 레티다오 씨는 "베트남에서는 생선을 산 채로 보관하면서 필요하면 꺼내서 요리해 (한국) 어물전의 생선이 모두 기절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일본인 이세리 미키 씨는 자신의 엉덩이를 내보인 황당한 사건을 소개했다. 미키 씨는 주사를 보통 팔에 맞는 일본과 달리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일을 겪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터키인 이스마일 바스귀르 씨는 자신의 나라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돌궐인이 터키의 시조"라며 한국전 참전에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터키에서도 잘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나라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같은 뿌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예선대회를 통과한 20명의 외국인들은 다음달 1일 오후 이 자리서 다시 모여 '세종대왕상'과 '부산사랑상' 등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 :: 강춘진 기자

부산일보 busanilbo.com

'식당·옷가게까지 '이모' 너무 많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 부산일보 | 2007.05.23 |

"한국에서 주사를 맞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세리 미카(20·여·일본)씨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한국유학 중 최대의 문화 충격을 털어놓았다. 병원 주사실에서 간호사가 바지를 내리라고 했을 때는 황당했지만 시키는 대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렸고 간호사가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만 간호사는 다시 오지 않았고 커텐이 열려 자신의 엉덩이가 공개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미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2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07 외국인 한국어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이 준비한 원고로 연습하고 있다. 김경헌기자 view@

22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전에 중국,일본,티벳 등 15개국적의 110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한국어 솜씨를 뽐냈다. 참가자 중 96명이 유학생이었고 결혼이민자가 12명, 직장인이 2명이었다. 자유 주제를 발표하는 예선전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와 인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여성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기러기 아빠, 빨리빨리병 등 한국 문화의 병폐를 따끔하게 꼬집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호칭을 둘러싼 '혼란스런 추억'은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중국에서 온 양아금(18·여)씨는 친구가 식당에 들를 때마다 이모를 찾아 그 친구의 이모가 정말 많은 줄 알고 신기해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나중에 보니 옷가게에도 '이모', 다른 가게에서도 '이모'라고 불러 그것이 종업원을 부르는 정다운 호칭인 걸 알았다고.
집안 오라버니는 물론, 선배나 애인 심지어 남편까지도 다 오빠라고 부르는데 놀랐다는 이도 있었다. '오빠'에 '야'를 붙여 '오빠야'라는 부산 사투리가 더 정답다는 발표도 나왔다.
또한 센고쿠 마다미(21·여·일본)씨는 "한국 남성의 남자답고 친절한 행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집까지 데려다 주는 행동,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자신에게 옷을 덮어주는 행동, 지하철에서 자리를 잡아 양보하는 행동들이 매번 자신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쉽게 사랑에 빠지는 병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예선에서는 최종 20명을 선발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 본선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솜씨뿐만 아니라 전통 국악공연, 힙합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이현정기자

2007 보도자료

부산KBS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 뉴스광장 KBS뉴스9 (부산 KBS) | 2007.07.14 |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모레(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청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목동병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진에서는 간기능과 신장기능, 혈당, 심전도 등 13가지 항목에 걸쳐 이뤄집니다.
한편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는 8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안종홍 기자

朝鮮日報

이스탄불 문화전 부산시청 전시실서 열려

:: 조선일보 | 2007.08.02 |

미니아튀르동(東)과 서(西)가 공존하는 터키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11일 이스탄불문화원 · 이스탄불시 등과 공동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이스탄불 문화전'을 갖는다. 한국 · 터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터키의 전통 민화인 '미니아튀르 세밀화'를 비롯, 인류 최초의 종이라 할 수 있는 파피루스 위에 그려진 유채화, 물과 기름을 이용한 마블링, 이스탄불시를 소개하는 사진 등 80여 점의 미술작품과 사진이 선보인다.
부산시 측은 "시민들이 부산의 자매도시이자 유럽과 아시아가 교차하는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경훈 기자

국제신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통공연

:: 국제신문 | 2007.09.10 |

10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 김동하 기자

바른언론 빠른뉴스 연합뉴스

뉴질랜드 청소년 축구 대표팀 부산서 친선경기

:: 연합뉴스 | 2007.09.28 |

뉴질랜드의 19세 이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부경고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이 28일 밝혔다.
부경고 축구팀은 우리나라 19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인 윤 빛가람 선수가 속해 있고 국가대표를 지낸 이차만 감독이 이끄는 부산의 축구 명문이다.
뉴질랜드 청소년 대표팀은 29일 오후 부산에 도착,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오전 북구구민운동장에서 자체 훈련을 갖고 오후에는 범어사와 동백섬 누리마루하우스 등 부산의 명소를 관광한다.
부산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한 관계이며 이번 친선경기는 두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국제교류재단은 설명했다. :: 이영희 기자

THE NATION'S NO. 1 ENGLISH NEWSPAPER

The Korea Herald

THURSDAY OCTOBER 11, 2007

Busan to hold 'Global Gathering 2007' festival

By Koh Young-ah

"Global Gathering 2007," a fall outdoor festival, is to take place in Busan on Saturday from 10 a.m. to 6 p.m. in front of the 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The festival, co-hosted by the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the Busan city government, was launched in 2006 to provide both Koreans and foreigners with a chance to experience and exchange various countries' cultures, food and traditions for free.

"We had about 20,000 visitors at last year's two-day festival, which we thought was quite successful, and are expecting about 10,000 to 15,000 people to come this year," said a spokesperson for the BFIA.

Various groups and embassies representing more than 30 nation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Turkey, Norway and Russia, will be involved in the festival which will feature four different areas: the Cultural, Experience, Main and Refreshment Zone.

At the Cultural Zone, traditional and modern arts and crafts will be presented in 40 different exhibition booths, each decorated by the participating nations. Spectators can also taste all kinds of food and take photos with people wearing their nation's traditional clothes.

Korean traditional games like jegichagi, yunnori and tuho as well as foreign traditional games can be enjoyed in the Experience Zone. Displays of folk crafts and rice cake-making procedures plus items representing Korean traditional life, such as straw bags and millstones, will be on display.

An amateur contest for foreigners where people will show off their singing, dancing skills and martial arts, is to be held on the Main Stage starting at 3 p.m. The contest will be followed by musicals, dance, and other performances by participants from Indonesia, Brazil, Vietnam, Ecuador and other countries.

The Refreshment Zone provides visitors with 13 kinds of herb tea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experts' counseling regarding legal, visa and medical matters. Free simple medical checkups will be offered. The money raised from selling herb tea is to be used to support foreign laborers in Korea.

"We hope the festival will become an opportunity for Koreans and foreigners to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 and to mingle in Busan, a city which aims to become an international city," said the BFIA's spokesperso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lobalgathering.or.kr or call 051-888-6656.

(youngahk@heraldm.com)

Russian participants present traditional souvenirs to visitors at "Global Gathering 2006." BFIA

Dynamic Busan

News

Busan seeking to be more global

BFIA is recruiting global correspondents

"Be a global correspondent who reports Busan news to the world."

The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or BFIA, is currently recruiting BFIA global correspondents among foreigners living in Busan.

The global correspondents will work as "messenger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by attending a variety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nd cultural events. They will then report on real-time news on Busan to foreigners living in Busan, as well as to their own countries.

They will also engage in a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being a lecturer of the world cultural programs held by the foundation and a production member of newsletters published in various languages. They will also serve as voluntee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ny foreigner can apply to become correspondents if they live in Busan. They must b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have a good command of conversational Korean and have an outgoing personality.

The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provided with name cards, letters of appointment and souvenirs. They will also have the option of participating in various events held by the BFIA.

The forms for 50 openings must be sent by Sept. 20. Tel: 051-665-0133

국제신문

달콩이와 함께가는 부산자랑 〈22〉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 국제신문 | 2007.10.09 |

지난해 열렸던 어울마당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 지게를 체험하고 있다.
학창시절 외국어를 공부할 때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슬슬 피하면서도, 한편으로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사용해볼 겸 말을 붙여보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원어민과의 한마디 대화가 백마디의 문법·단어공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원어민회화를 못 시켜 안달이고 심지어 외국유학까지 보내곤 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어울마당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 지게를 체험하고 있다.

아이들이 외국인과 맘껏 대화하며, 외국에 흥미를 갖고, 언어를 왜 배워야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마당에서 열릴 '외국인과 함께 하는 2007 어울마당(Global Gathering 2007)'이 그것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마련하는 이 행사는 부산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각국의 음식 문화 전통 등을 교류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중국 일본 터키 에콰도르 과테말라 브라질 러시아 등 30여 국가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칩니다.
어떤 행사 있나 = 문화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 등 4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마당은 세계 각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나라별 홍보물과 기념품을 전시하며 외국인이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요리보고 세계보고'코너에서는 중국 일본 노르웨이 인도 폴란드 스리랑카 등 10개 국가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마당은 각국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제기차기 떡치기 맷돌 절구 널뛰기 등과 일본 네팔 러시아 등 외국의 전통놀이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밖에 외국인 장기자랑과 국가별 무대 공연이 펼쳐지는 참여마당과 세계 각국 13종류의 허브차를 마셔보는 나눔마당이 펼쳐집니다. 관람은 무료.
제대로 즐기려면=우선 세계지도를 준비해 가십시오. 부스를 돌며 각 나라를 대륙별로 지도에 표시하고 위치와 수도명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또 부스 앞에 내걸린 국기모양의 안내판을 보며 각 국의 국기모양을 익히고 외국인들이 입고 있을 민속의상과 연관성도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30여 개 나라를 망라하기보다 아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를 몇 곳만 골라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수박 겉핥기 체험이 안되려면 ▷낮에 맛본 중국의 닭다리 튀김요리 해먹기 ▷각 나라 국기 그려보기 ▷몽골 전통악기인 마두금 그려보기 ▷인상 깊었던 외국인에게 편지쓰기 ▷스리랑카의 전통차인 실론티와 우리 전통차 맛 비교하기 ▷ 폴란드 쿠키와 한국의 과자 장단점 생각하기 ▷외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한국홍보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까 직접 만들어 보기 등을 권합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김현영 씨는 "이번 축제는 아이들과 외국인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교감하며 지구촌 가족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방희원 부산시보 편집위원

- 가는 길 :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하차
  버스 5-1, 40, 31, 31-1, 141, 142, 100, 100-1, 200-1, 235, 307, 2002, 31, 31-1 등
- 문의:부산국제교류재단(888-6656, www.globalgathering.or.kr)

부산 MBC

외국인 어울마당 개최

:: 부산MBC | 2007.10.10 |

부산시는 오는 13일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2007 어울마당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마련하는 이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러시아 등 32개국의 대사관과 단체 등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선보입니다.
전통음식과 놀이도 체험할수 있는 외국인 어울마당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판매 수익금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박희문 기자

부산일보 busa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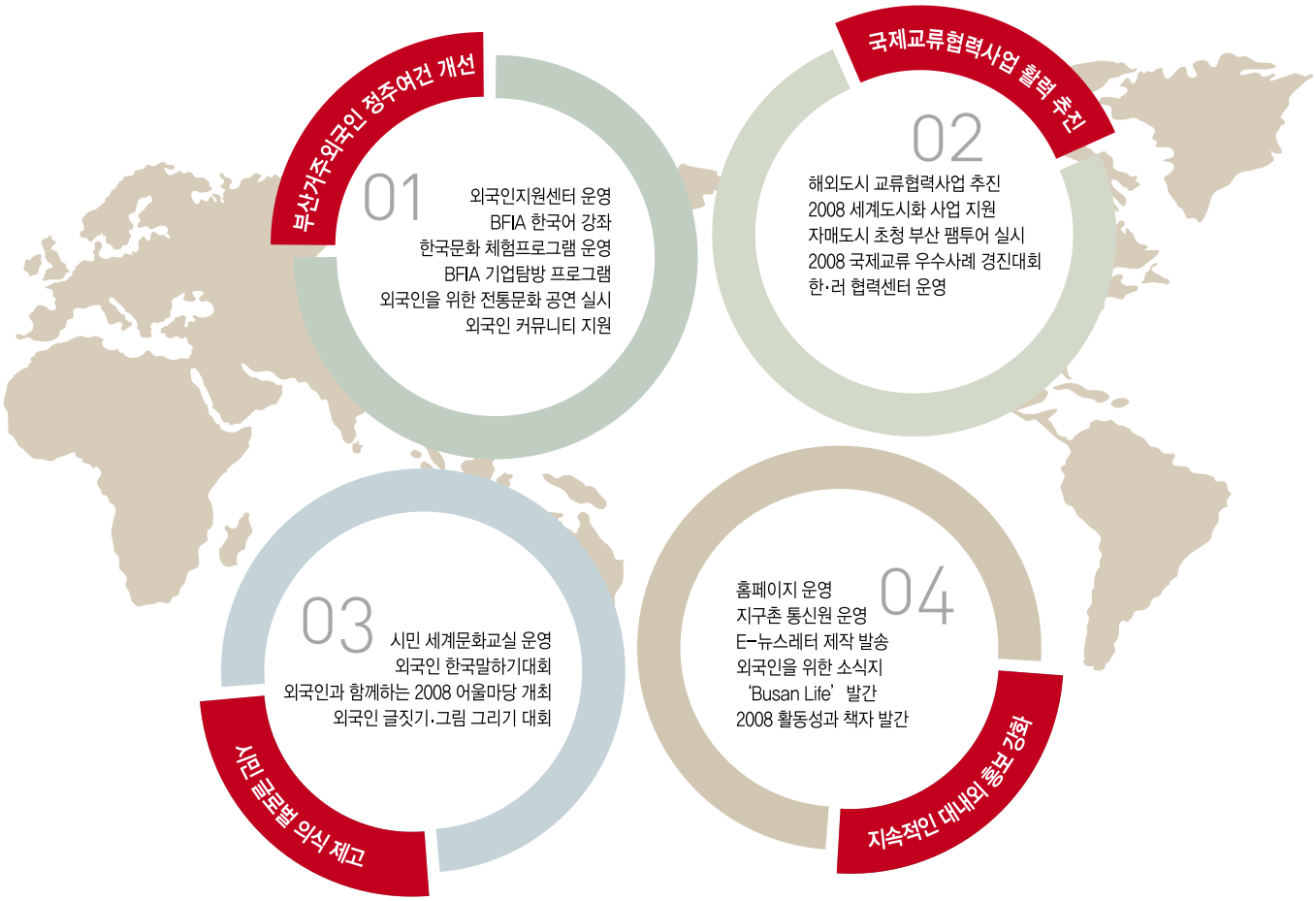
제1회 국제교류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산 남성여고 '몽골 제45학교…' 최우수상

:: 부산일보 | 2007.12.6 |

부산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의 씨알 역할을 할 '제1회 국제교류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 남성여고의 '몽골 제45학교와의 교류활동'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 국제교류단체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제교류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몽골 학교와 처음 자매결연을 체결한 남성여고는 일회성 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컴퓨터나 학용품 기증이 아닌 망아지 구매비용을 몽골 제45학교에 전달, 말을 길러 판 자금으로 두 학교의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또 망아지 기금 마련 방법으로 일상적인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축제를 이용한 몽골 음식점 운영, 폐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상에는 ㈔부산교육연구소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어린이 희망학교' 사업이 받았고 입선에는 △동의대 제8기 해외봉사활동 △한몽우호협회의 대몽골공화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아이섹코리아의 국제하계캠프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모바일 미션파서블 △APEC기념재단의 외국 유학생 후견인 사업 △영산대의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개발 사업 등이 수상했다. 상금은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입선 30만원 등이다. :: 백현충기자

2008 주요사업



2008 주요 일정

1월
14(목) 2008 세계도시화사업 신청 접수
19(수) 제1기 BFIA한국어강좌 개강
30(수) 한국문화체험(연 만들기)

2월
11(월) 홈페이지 개편
20(수) 한국문화체험(봉산탈춤)

3월
1 (토)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Busan Life' 영어판 발간
19(수) 한국문화체험(매듭공예)
31(월) 세계문화교실 전기 개강

4월
9 (수) 한국문화체험(화전과 다식)
14(수) 제2기 BFIA한국어강좌 개강

5월
14(수) 한국문화체험 (농촌생활체험)
20(화) 외국인 기업탐방
23(금) 외국인 한국말하기대회
29(목) 외국인 전통문화 공연

6월
2 (월)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발간 (영·일·중·러시아어판)
11(수) 한국문화체험(장구·가야금)

7월
7 (월) 제3기 BFIA한국어강좌 개강
9 (목) 한국문화체험(한지공예)

8월
13(수) 한국문화체험(바다체험)
15(금) 결혼이민자가족 무료 건강검진

9월
1 (월) 세계문화교실 후기 개강
10(수) 한국문화체험(택견)

10월
2 (목) 외국인 전통문화 공연
8 (수) 한국문화체험 (전통탈만들기)
9 (목) 외국인 그림·글짓기대회
19(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8 어울마당
30(목) 외국인 기업탐방

11월
4 (화) 자매도시 초청 부산 팸투어
12(수) 한국문화체험 (범어사 템플스테이)
28(금) 국제교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12월
10(수) 한국문화체험(김치담그기)
31(수) 2008 활동성과 책자 발간

※2008 주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포스터

Sister-City Exhibition Hall
Korea-Russia Cooperation Center
Gateway to the Worl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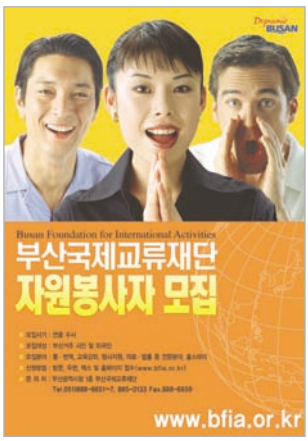
2007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부산국제교류재단
Introduction

Global Gathering 2007
어울마당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06 Korean Speech Contest
Global Busan with BFIA
부산국제교류재단
국제신문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2007 Korean Speech Contest
2007. 6. 1(금) 14:00 시청대강당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부산국제교류재단
자원봉사자 모집
www.bfia.or.kr

국·제·교·류
서포터즈 모집
Volunteer opportunities with BFIA
"세계도시 부산,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www.bfia.or.kr

외국인과 함께하는 '2006어울마당'
Global Gathering 2006
Apply for an exhibit booth NOW !
Show your enthusiasm on stage !
BFIA FESTIVAL!!
BFIA

2007
외국인과 함께하는
Global Gathering 2007
어울마당
백스코 옥외전시장
BEXCO OUTDOORS

Korean
Cultural
Experien
Program
2007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Schedule

2007
국제교류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2007.12.5(수) 14:00 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국제교류재단 2007 활동성과
BFIAANNUALREPORT2007

발 행 일 2008년 2월 25일
발 행 인 안준태
발 행 처 부산국제교류재단
주　　소 (우)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시청 1층
전　　화 051-888-6657
팩　　스 051-888-6659
홈페이지 www.bfia.or.kr
이 메 일 bf@bfia.or.kr
인 쇄 처 빅그린

부산국제교류재단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우)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시청 1층
City Hall(1FL), 2001 Jungangno, Yeonje-gu, Busan, Korea, 611-735
Tel 051) 888-6657 Fax 051) 888-6659 E-mail bf@bfia.or.kr
www.bfia.or.kr